

산업·관광 융합... 메이드인 재팬 '최상품' 자부심



EXPO 2012 YEOSU 2012 개최도시에서 배운다

6시너지 효과 극대화 - 오사카 ⑤

지난 1970년 개최된 오사카엑스포는 2012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훌륭한 교과서다. 여수와 오사카는 임해공업단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데다 오사카가 엑스포 개최를 통해 주변 도시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오사카는 일본 최대 임해공업단지 지로 지난 1970년 아시아 최초의 엑스포 개최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크게 힘써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세번의 도전 끝에 개최권 따내

오사카에서 간사이공항을 거쳐 고베로 이어지는 100km의 해안 고속도로는 양 지역 관광과 물류의 동맥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임해공단인 오사카와 고베를 연결해주는 길에는 수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고 양 지역의 생산 제품은 현장에서 컨테이너선에 실리거나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통해 유통된다.

또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아카시 해협대교'(일명 펄브리지, 3천911m)가 지난 1998년 들어서 오사카와 고베를 연결해주고 있다. 아카시 대교는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명소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오늘날 오사카와 고베의 눈부신 발전에는 지난 1970년 열린 세계박람회 자양분이 됐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일본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오사카 엑스포 개최권을 따냈다.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일본은 오사카와 고베를 연결시키는 물류체계를 대폭 확충하고 산업 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보강했다. 또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

쟁력을 끌어올렸다.

오사카엑스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197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부상한 후지, 미쓰이, 히타치그룹 등 일본 유수기업들은 모두 최첨단 제품을 앞세우고 엑스포에 참가했다.

오사카 시내에서 모노레일로 1시간 못미처 도달하는 면적 350ha의 박람회장은 엑스포 개최 확정 이전에는 논과 밭, 대나무 밭이었다. 이곳에 건설된 박람회장은 일본식 정원과 일본의 특색을 표현한 태양탑이 들어섰다. 일본은 오사카엑스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6개월동안 6천420만 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여수와 여건 비슷 반면교사로

오사카엑스포의 '교훈'은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임해공단인 오사카와 고베를 연결시켜 세계 어디에도 내놓아도 손색없는 공업벨트를 만들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관광지를 조성했다.

2012여수엑스포도 오사카 세계박람회의 경험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수 인근에 바다와 가까운 공업단지가 있고,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오사카엑스포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12엑스포를 통해 여수와 광양, 진주, 부산까지 묶는 신산업지대를 형성하고 남해안권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사카=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오사카 세계박람회 부지에 조성돼 있는 일본식 정원. 일본은 1970년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주변 산업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를 만들어 지역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했다. /오사카=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970년 오사카엑스포

아시아 최초 세계박람회

1970년 3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린 오사카엑스포는 아시아 최초의 세계박람회였다. 오사카엑스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부흥과 1964년의 도쿄올림픽 여세를 몰아 1965년 5월 개최가 결정됐다.



애초 일본은 1912년과 1940년에 엑스포 개최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1912년은 메이지(明治)의 사망으로, 1940년은 1차대전으로 좌절됐다. 이후 일본은 2차대전

종전 후 비약적인 경제발전 끝에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오사카엑스포 개최에 심혈을 기울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박람회를 열었다. 이후 일본은 1975년 최초의 해양박람회인 오키나

와엑스포를, 1985년에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쓰쿠바엑스포, 2005년에는 인간과 환경 테마의 아이치엑스포를 열어 아시아권에서 세계박람회 선진국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주제로 한 오사카엑스포는 '생산 및 기술의 발전, 일본과 오사카의 국제화'를 위해 열렸다.

77개국과 3개 국제기구, 31개의 일본 기업이 참가한 행사에는 모두 6천421만 8천770명이 찾아 아직까지 가장 많은 방문객 기록을 갖고 있다.



오사카엑스포 기념관. 행사 개최 당시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곳이다.

Advertisement for '영원한 사랑을 드립니다' (I give you eternal love) featur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북한으로 떠나는 개성기차여행' (Train trip to North Korea) with details on routes and prices.